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컬러성향분석(CPA)에 대한 이론적 고찰

A Theoretical Study on the Color Propensity Analysis (CPA) for the Development of the Sports Industry

이영좌(차의과학대학교 겸임교수) · 조수경(강동대학교 겸임교수) · 신정호(한국체육대학교 교수)

Youngjoa, Lee *Energyscience/president* · Suekyung Cho *Gangdong Uni* · Choungho Shin *Korea National Sport Uni*

요약

본 연구는 컬러성향분석(CPA)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여 국내에서 개발되고 국내외 해외에 알려지기 시작한 컬러성향분석(CPA)의 문헌들을 조사 연구하여 스포츠 산업 분야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컬러성향분석(CPA)은 생체에너지를 연구하며 컬러와 성격의 상관관계에 대해 25년간 임상연구를 해 온 에너지사이언스가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컬러성향분석(CPA)은 사람의 성격을 12가지 컬러와 연결시켜서 구분하였고, 10가지 오행에너지를 통해 내면의 에너지 흐름을 분석한 복합적인 프로그램이다. 무엇보다도 바쁜 현대인들이 1분 안에 빠르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본질적인 성향을 분석하여 보다 심도 있게 자신과 타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컬러성향분석(CPA)프로그램을 스포츠 산업의 도구로 활용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A대학교의 태권도학과 학생들 33인을 대상으로 CPA분석을 진행 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CPA프로그램은 타고난 생년월일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성향을 12가지로 분석할 수 있었다. 둘째, CPA프로그램은 성향 유추가 어려운 본질적, 잠재적 성향 분석을 분석할 수 있었다. 셋째, 컬러성격분석(CPA)프로그램의 인지 성향분석을 파악하여 사건이나 사람에 대한 고유한 가치판단 기준을 분석 할 수 있었다. 넷째, 컬러성격분석(CPA)프로그램의 행동 성향분석을 파악하여 표현방식과 일을 추진하거나 진행하는 방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섯째, 컬러성격분석(CPA)프로그램의 오행에너지 분석으로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의 방향성을 유추할 수 있었다. 여섯째, 컬러성향분석(CPA)은 각 스포츠 종목마다 요구되는 서로 다른 기질과 성향에 대한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일곱 번째, 컬러성향분석(CPA)을 통해 스포츠가 성격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sports industry by examin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color propensity analysis (CPA) and researching the literature of color propensity analysis (CPA) developed in Korea and known abroad. Color propensity analysis (CPA) is a program developed by Energy Science, which has been conducting clinical research on the correlation between color and personality for 25 years. Color propensity analysis (CPA) is a complex program that classifies a person's personality by connecting it with 12 colors and analyzes the inner energy flow through 10 five-way energy. Above all, it has the advantage of helping busy modern people understand themselves and others in more depth by analyzing their essential tendencies in a quick and intuitive way in a minute. In addition, a CPA analysis was conducted on 33 Taekwondo students at the Korea Sports University to check whether the CPA program can be used as a tool for the sports industry. Through this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First, the CPA program can analyze a person's tendency in 12 ways just by analyzing his or her natural birth date. Second, the CPA program can analyze essential and potential propensity analysis that is difficult to infer propensity. Third, it is possible to analyze unique value judgment criteria for events or people by grasping the cognitive propensity analysis of the color personality analysis (CPA) program. Fourth, it is possible to grasp the behavioral propensity analysis of the color personality analysis (CPA) program to understand the expression method and the method of promoting or proceeding with work. Fifth, it is possible to infer the directionality of energy potential inside by analyzing the five-way energy of the color character analysis (CPA) program. Sixth, color propensity analysis (CPA) was able to easily confirm the differences in different dispositions and tendencies required for each sports event. Seventh, it was found that color propensity analysis (CPA) could help develop the personality of sports events.

Key words : color propensity analysis (CPA), five element energy, 12 colors, personality development, sports psychology

I. 서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말씀은 석가모니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변화무쌍한 마음의 세계를 탐구하고, 의식 성장을 해 나가며 병든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심리분석, 심리학, 다양한 성격분석법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이영좌, 2017). 빛과 컬러는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 밑바닥 감정을 밝게 비추어 마주보게 도와주고 스스로 긍정으로 전환하도록 에너지를 나누어 주는 훌륭한 도구이다. 색채연구는 단순히 색을 바라보는 인간의 주관적 감성에 의존하였으나 20세기 초에는 과학연구를 바탕으로 심리적 측면에서 색채연구가 시작되었다(김진한, 2002). 기존 서양의 색채요법들과 더불어 동양적인 색채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컬러테라피의 이론과 치유법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안지혜, 김종두, 2013). 개인의 선호 경향에 대한 색채 관련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색채선호도 조사를 위한 기본 색상을 중심으로 분석하거나 부정확한 색명 사용을 분석함으로써 대략적 선호경향을 파악한다(Sun & Sun, 2013).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나 태도를 찾아내는 객관적 도구를 찾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색을 심리적으로 활용하고 적용하기 위한 객관적 검사도구가 필요하다. 객관적 검사도구는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성격특성을 객관화함으로써 의사소통이나 마케팅, 그 외에도 산업 전반에서의 관계능력 향상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의 태도를 가늠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Choi & Choi, 2014).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MBTI, 에니어그램, MMPI 등과 같이 색채심리를 활용한 자기보고식 성격유형검사는 비용 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과 사고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언어적인 검사 방법으로 자기확인을 통해 얻어지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되기 쉽고 언어적 이해가 부족할 때 검사의 한계가 생긴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고민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컬러성향분석(CPA)이다.

컬러성향분석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인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기존 데이터보다 너무 방대하여 기존의 방법이나 도구로 수집, 저장, 분석이 어려운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라고 한다(존 매쉬, 1990). 빅데이터는 산업혁명 시기의 석탄처럼 IT와 스마트혁명 시기에 혁신과 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원천으로 간주되고 있다. 데이터 속도(Velocity)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뜻한다. 정형 데이터 뿐만 아니라 사진, 오디오, 비디오, 소셜 미디어 데이터, 로그 파일 등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도 포함된다(ikkison, 2019.05.23). 컬러성향분석(CPA)은 사람의 성격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다(에너지 사이언스, 1997).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죽는 것을 피할 수 없고 태어나는 순간에 부여 받는 고유번호를 평생 자신을 증명하는 식별코드로 지니고 살아가기에 삶의 기록을 남긴 전 세계의 수 많은 인물들의 고유번호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12컬러와 오행에너지 특징으로 성격유형을 분류하였다(에너지 사이언스, 1997).

스포츠활동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다른 산업분야와 연계를 이루어야 한다. 만족스런 운동수행을 위한 최적의 스포츠용품, 용구 분야, 스포츠 콘텐츠 개발을 위한 인터넷 정보통신 분야, 국제스포츠 관전을 위한 심라적성분야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용만, 2005.05.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컬러성향분석(CPA)에 대한 국내외 연구문헌조사와 임상자료를 바탕으로 스포츠 산업 분야에서의 유용성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컬러성향분석(CPA)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여 국내·외에 전파된 컬러성향분석(CPA)의 문헌들을 조사 연구하여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컬러성향분석(CPA)에 대한 이론과 실체를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향후 컬러성향분석(CPA)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스포츠 산업의 여러 영역 중 스포츠 종목과 적합한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A대학교 태권도학과 학생 33인을 대상으로 컬러성향분석(CPA)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12개의 성격유형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성향과 10개의 기질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기질 타입을 분석해 보았다. 성향과 기질을 분석하기 위해 컬러성향분석(CPA) 프로그램을 A대학교 태권도학과 학생 33인에게 쿠폰으로 전송하여 생년월일서를 입력하도록 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성향에 따라 잘 맞는 스포츠 종목을 알 수 있고 이것은 맞춤형 스포츠 산업을 위해 유용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스포츠인들에게는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며 끝내 성취를 이루는 극기의 정신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ダイ나믹한 순발력을 요하는 종목과 침착하게 정적인 집중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이 보다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컬러성향분석(CPA) 프로그램을 통해 알아보고 스포츠 산업에 융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함이다.

III. 이론적 배경

1. 성격과 인격

우리들은 성격이란 말과 인격이란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인격자다.” 또는 “그 사람의 성격은 원만하다.” 등으로 특정 개인의 인간을 논할 때 빈번히 사용되고 있어 애매모호하게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성격과 인격, 이 두 가지 단어가 사실 확실히 구별되지 않는다. 우리말 사전(새우리말 사전, 삼성출판사, 1983)에서는 성격을 ‘사람의 정신생활의 모든 면에서 나타나는 각 개인에게 특유한

감정, 의지, 행동 따위의 경향' 으로 넓은 뜻으로는 '인격' 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아 성격을 인격의 한 요소로 본다. 인격이란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데 필요한 정신적 자력' 이라고 하여 불가치적인 성격에 비해 인격은 가치적인 개념으로 기술하고 있다(박휴용, 2013). 그래서 인격이란 개념을 '복잡한 정신현상이 의식 속에서 통일되어 있는 개인' 으로 기술하였던 것이다.

인격이란 말에서 가치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격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곧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 그러나 이에 비해 '성격' 이란 말에는 가치관이 들어가지 않다(박휴용, 2013).

1) 성격을 의미하는 용어

(1) 성격(Personality)

일반적으로 성격이라 함은 인간이 태어나서 사회 환경과 접하면서 형성된 타인과 함께 형성된 이미지를 말한다. 어찌 보면 문화적 조건과의 상호작용에서 생산된 산물인 특징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외양, 가시적 행동, 그리고 표면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애초에 성격이란 말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때 한 개인이 취하게 되는 피상적인 사회적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이 사회적 이미지란 그가 자기 주위 사람에게 표명하는 공적 성격을 뜻한다. 즉 성격은 매력, 사고 자세, 인기, 성적 매력 등, 기타 바람직한 여러 가지 사회적 성격특성과 같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2) 개성(Character)

성격적 부분에서 개성이란 선천적으로 타고날 수도 있는 보다 심층에 자리 잡고 있는 기본적인 안정된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개성(Character)은 성격(Personality)보다 사회-문화적 조건의 영향을 덜 받는 것이다. 성격(Personality)이 다른 개인에게 지각된 특성이라면 개성(Character)은 한 개인의 타고난 특성 그 자체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3) 기질(Temperament)

성격 중에서 개인이 타고난 생물학적 구조를 더 강조한 용어이며 체질처럼 개인의 생리학적 기제에 의해 결정되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특성으로서 개성보다 더 본질적이며 기본적인 특성이다. 개인의 기질은 주로 정서적 특징으로 표현된다. 즉, 기질의 개인차는 정서적 자극에 대한 민감성에서의 개인차로 표현된다. 따라서 기질은 환경적 자극에 대한 개인의 반응양식을 결정하고, 성격(character와 personality)을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성격과 기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 둘은 여러 차원에서 구분될 수 있다.(이현수, 1994: Strelau, 1983). 첫째, 사회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행동은 성격의 범위에 속하고, 개인의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행동은 기질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성격의 특징은 학습과 사회화 과정의 영향을 받는 성인기에 나타나는 반면에 기질의 특징은 아동기 초기부터 두드러진다. 셋째, 성격의 특징은 자아, 자기효능성, 자기통제와 같

은 인지적 개념을 기술 할 때나 성취욕구와 같은 행동 목표를 기술할 때 활동되지만 기질은 인간 이외의 동물의 행동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기질은 성격보다 안정된 특성이다. 그러나 기질도 죽을 때까지 절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만성적 질병, 영양상태, 그리고 학습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변화할 수 있다.

2. 동양 철학적 성격이론 : 음양오행 에너지

음양오행은 우주만물과 존재를 이해하는 동양철학적 관점이다. 지금부터 5,500년전 배달국 제5대 태우의 막내아들인 태호 복희씨가 그린 하도(河圖)이다. 하도(河圖)를 계승 발전하며 만물의 생장 운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의 변화 이치를 밝힌 것이 낙서(洛書)이다. 팔괘(八卦)를 그려 주역(周易)의 기초를 닦았다. 인간의 생성과 소멸은 우주의 순환 이치와 같으며, 태양(太陽)과 목성(목성), 화성(화성), 토성(토성), 금성(금성), 수성(水星)이 달과 지구와 멀고 가까워질 때 생기는 변화 속에서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하나의 별이며, 이 별들의 원소는 오행으로 이루어졌다.

만유(萬有)를 음(陰), 양(陽), 중성(中性)의 세가지로 나누고 음(陰)은 전자(電子), 양(陽)은 양자(陽子), 중성(中性)은 중성자라고 한다. 원자탄의 핵은 바로 이 세가지로 구성된 결합체이며, 전기는 +, -의 부딪힘에서 발생하는 음영의 결합적 현상이다. 동양의 음양과 중성외에 음(陰)을 발생시키는 음모(陰母)와 양을 발생시키는 양모(陽母)를 발견하여 사상을 형성하여 오행을 갖추었다. 음양오행, 태극사상으로 세분화된 철학은 과학, 철학, 의학, 경제, 문화, 스포츠, 건축, 예술, 정치, 지리학, 복술학 등 다방면에 걸쳐서 과학을 뛰어넘는 보다 근원적인 진리 체계로 자리 잡고 있다. 오행은 비과학적이라고 보면 안되며 무기질이나 유기물의 생물이나 무생물이든 만물이 음양의 원리를 벗어 날 수 없듯이 오행의 원리에 귀착(歸着)되지 않는 것이 없다. 양자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닐스 보어는 음, 양의 이치를 담은 태극문양에서 힌트를 얻어 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진 원자 모델을 발견 후 태극마크를 가문의 문장으로 삼았다. 라이프니치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칙연산을 할수 있는 계산기를 발견했는데 계기는 중국에 선교사 친구가 보낸 편지에서 우연히 두 장의 '태극도' 를 입수한 것이 시초였다. 그는 태극도의 64괘의 배열이 바로 0에서 63에 이르는 이진법 수학이라는 것을 발견했으며, 그 원리에서 계산기 작동의 힌트를 얻었다. 이진법의 원리는 오늘날 컴퓨터 문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코드가 되었다. 오행기질은 존재가 가진 독특한 분위기나 느낌, 아우라의 세기 등과 같은 의미이다. 이와같은 오행기질의 세부적인 성질은 <표 1>과 같다.

표 1. 오행의 성질

구분	木	火	土	金	水
재질	나무	불	흙	쇠	물
계절	봄	여름	환절기	가을	겨울
방위	동	남	중앙	서	북
색깔	푸름	빨강	노랑	하얀	검정
맛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순환	출생	성장	조화	수확	저장
성품	어질다	예의	믿음	의리	지혜
냄새	누린내	탄내	단내	비린내	썩내
오관	눈	혀	입	코	귀
기운	풍	열	습	조	한
음계	궁	상	각	치	우
음	ㄱ, ㅋ	ㄴ, ㄷ, ㄹ, ㄷ	ㅇ, ㅎ	ㅅ, ㅈ, ㅊ	ㅁ, ㅂ, ㅍ
숫자	3,8	2,7	5,10	4,9	1,6
오행	목1,목2	화1,화2	토1,토2	금1,금2	수1,수2

(출처 : 에너지 사이언스)

3. 컬러성향분석(CPA)의 개념

컬러는 빛의 일부이며 각각의 고유한 파장과 진동을 가지고 있다(Wills, 1997). 난색계열의 색과 밝고 강한 색을 선호하는 외향적인 사람들, 어둡고 호린색의 한색계열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격별 색채선호도에 대해 입증하였다(Birren, 2008). 인간의 시신경 자극을 통해 신체로 들어와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게 되는 컬러의 파장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신체 전체의 생화학적인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호르몬 생성을 유도한다 (Wills, 1997; 표영희, 2004; Fox, 2008). 선택한 색채 끌리지 않는 색채의 반응은 색채를 선택하여 적당한 자극을 주게 되면 휴식과 생기를 돕게 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주어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본질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인간에게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

색채는 인간의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다양한 심리 반응을 유발하는 인간의 의식 무의식과 상관없이 인간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한기증, 1998).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4가지 요소(생년월일, 컬러, 도형, 혈액형)를 이용하는 단순하지만 본질을 알 수 있는 검사법, 성격은 현재의 환경이나 심신의 상태 또는 개인의 경험과 교육에 따라 변하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본래의 성질이 있다. 컬러성향분석(CPA)검사는 타고난 성격과 성장 환경, 현재의 상태 등 다양한 요소의 복합적인 판단과 분석으로 도출된 결과이다. 따라서 컬러성향분석(Color Personality Analysis)은 사람의 근본적인 성향과 현재의 심신의 상태를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특허받은 신개념 성격 검사 프로그램이다.

4. 컬러성향분석(CPA)의 역사 및 발달과정

인체와 컬러와의 연관성은 고대 그리스의 공기, 불, 물, 흙등의 원소개념들과 함께 발전하게 되어왔다. 색채요법의사용은 기원전 4세기경에 히포크라테스는 상처치료에 다양한 색깔의 연고를 사용하였으며, BC 300년경 아리스토텔레스는 색이 있는 여러 가지 수정이나 연고, 광물질이나 물감을 사용하여 치료에 이용하였고, 1세기경 로마시대에 Celsus는 색을 이용하는 치료법을 사용하였으며, 르네상스시대에는 색채요법이 더욱더 발달하게 되어 전문적 치료 목적으로 색채를 사용하였다. 르네상스시대의 Paracelsus(1493-1541)는 신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정신의 치유수단으로 색채를 사용하였다(Verner-Bonds, 1993; Wills, 1997; 카시마하루키, 2007). 이탈리아 스카르미글리오니가 1601년에 ‘색채’ (De Coloribus)를 출판하면서 색채에 대한 광학분야, 심리학분야, 언어나 예술분야에서 색채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개념이 제시되어 지각적 접근에 유용한 기준점이 되었다. 20세기 성격심리학이 정립되기 전에도 사람마다 다른 특성을 가진다는 기록이 있었다. 최초의 성격심리학 저서는 고대 그리스의 테오프라토스의 리케이론을 운영하던 학자였는데, 29가지의 좋지 않은 성격을 기술했다. 또한 갈레노스는 사람을 네 가지 기질로 분류함으로써 성격을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골턴은 인간 행동을 처음 측정했고, 이런 측정을 ‘테스트(test)’로 처음 명명했다. 성격이 ‘변하지 않는 속성’이란 것을 처음 밝힌 사람은 19세기 영국의 골턴(Francis Galton)이었다. 인류학자이자 유전학자였던 골턴은 최초의 통계학자이기도 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개인 간에 존재하는 차이는 노력이나 의지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골턴은 이러한 차이의 대부분은 타고난 것이며, 노력으로 극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태생인 올 포트는 1922년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1921년<성격특질, Personality Traits>란 책을 출간했다. 포트가 심리학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의식 상태를 탐색하기 전에 현재 상황과 의식적인 동기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존이 인적성 검사들은 대부분 필기로 보는 검사들이었다. 필기시험을 보듯 문항을 통해 검사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본질적, 잠재적, 성향을 검사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컬러성향분석(CPA) 시스템은 기존의 설문지나 필기 방식과는 달리 지원자에게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언어가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한 컬러와 도형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성향을 대변해 주는 도구로써 매우 유용하다. 타고난 성격과 끌리는 컬러, 도형을 묻는 컬러성향분석(CPA)검사 방식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그 어떤 검사방식보다 더 근원적인 성향을 잘 파악해 준다. 태어날 때 타고난 성격이 전체 성격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렇기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과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매우 중요하다.

5. 컬러성향분석(CPA)의 12가지 컬러 성향

컬러 자체는 빛을 가지고 있다. 검사자가 스스로 공명하는컬러를 찾는 것은 자신의 심리적, 육체적 정보와 공명하는 빛의 정보, 메시지를 만나는 것이다. 컬러를 도구로 사용하는 컬러성향분석(CPA)은 검사자가 검사를 하는 과정부터 컬러의 영향을 받게 된다. 양자물리학의 공명의 법칙은 인간의 심신에 컬러가 미치는 중요한 상호관계를 밝혀준다. 컬러는 공명의 힘으로 생명에너지를 활성화시키고, 삶에 필요한 에너지를 강화시켜 줄 수 있다. 자신과 공명하는 컬러를 제대로 찾으면 그 속에 깃든 많은 의미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의 강점과 보완점을 바로 알고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자아실현을 돕고 삶의 목적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함으로써 심신의 평안함을 준다. 이러한 통찰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도 커지기에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상호관계에 큰 도움이 된다(에너지 사이언스, 1997). 색에는 각각의 특성이 있고, 신체의 특정부위와 연관성이 있어서 우리들의 심신에 영향을 미치며 사람의 몸과 마음에 균형을 가져다주며 치유에활용되고 있다(Wills, 1997).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기본 컬러 성향의 지식이 필요하다. 기본 컬러 성향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기본 컬러 성향 키워드

기본색 분류	키워드
오렌지	긍정 호기심, 즐거움, 기쁨, 창의력, 자유로움
	부정 불안, 불신, 두려움, 책임회피, 쾌락주의
골드	긍정 정복자, 성공한, 완벽주의자, 풍요로운
	부정 힘과 권력에 집착, 사람차별, 성취중요
엘로우	긍정 행복, 지혜, 따뜻한, 빠른습득, 지식 욕구
	부정 주의산만, 인색, 맹목, 자만, 의심, 비판적
인디고	긍정 안정, 보호, 심오, 예지,논리적인, 휴식
	부정 현실 괴리, 두려움, 불안, 참체, 독선
마젠타	긍정 리더십, 의리가 있는, 오픈, 당당함, 헌신
	부정 과신, 자만, 오만, 고집있는, 권력, 선긋는
블루	긍정 원리 원칙, 조력자, 소통, 성실, 책임
	부정 우울, 슬픔, 불신, 보수적, 분노, 변덕
블루 그린	긍정 균형, 인내, 솔선수범, 희생정신, 완숙한
	부정 게으름, 불안, 독선, 견제, 독점, 오만
레드	긍정 열정, 용기, 힘, 의지, 개혁자, 추진력
	부정 독재, 폭력, 증오, 경솔, 흥분, 공격적
그린	긍정 평화, 사랑, 조화, 발전, 행운, 안전, 성실
	부정 분노, 단절, 참체, 질투, 나태, 방종, 공포
퍼플	긍정 신비, 고상, 명상, 영적인, 자비, 선구자
	부정 우울, 고독, 시련, 슬픔, 비현실적, 연민
터콰이즈	긍정 독립적인, 마이웨이 지향, 매력, 아이디어
	부정 개인주의, 나만 아는, 두려움, 나만 옳음
핑크	긍정 연민, 사랑, 감성적인, 도움을 주는, 치유
	부정 우유부단, 무책임, 무력한, 도움을 받는

(출처 : 에너지 사이언스)

6. 컬러성향분석(CPA)의 10가지 에너지

핸드폰이 완전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파워 기능을 담당하는 배터리와 고유한 주파수인 전화번호가 필요하다. 사람에게도 각기 다른 저마다의 주파수가 있다. 그것이 고유의 성격유형, 즉 성향에 해당된다, 또한 그 성향을 사용하기 위한 파워에 해당하는 고유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컬러성향분석(CPA) 프로그램에서는 이 에너지를 방향성에 따라 크게 5가지로 분류하고 그 5가지를 다시 세분화 시켜서 10개의 에너지로 구분한다.

수직으로 위를 향하는 에너지를 목(木)에너지라 한다. 성장에 대한 의욕이 강하고 개혁력이 강하다. 하지만 한자리에 뿌리를 두는 고집과 강직함이 장점이면서 동시에 단점이 될 수 있다. 주로 학자나 연구가들에게 많은 에너지 타입이다.

위로 상승하며 사방으로 향하는 에너지를 화(火)에너지라 한다. 속에 담아두기보다 발산하고 드러내는 에너지이기에 화려하게 주목을 많이 받는 직종에서 주로 빛을 발휘한다.

모든 에너지들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는 에너지를 토(土) 에너지라고 한다. 심리적으로 단단한 중심을 가지고 있다.

안쪽으로 수렴하며 내면을 견고하고 내실있고 단단하게 만드는 에너지를 금(金)에너지라 한다. 모든 에너지 타입중 멘탈이 가장 강한 에너지 타입이다.

유연하고 유동적이며 변화무쌍한 에너지를 수(水)에너지라 한다. 고정되고 반복적인 일들보다는 변화가 많고 진리를 얻을 수 있는 지적 탐구에 능한 에너지 타입이다.

스포츠 종목에 따라 유리한 에너지 타입이 있을 수 있다. 선수들이 잘 사용하는 에너지 타입과 그렇지 못한 에너지 타입을 분석하고 보완할 수 있다면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IV. 연구결과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인지컬러성향 결과의 비교

1. 인지컬러성향 비교

스포츠 산업발전을 위한 컬러성향분석(CPA) 적용에 따른 인지 컬러성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레드 2명 6.1%, 오렌지 3명 9.1%, 엘로우 4명 12.1%, 그린 3명 9.1%, 블루 3명 9.1%, 인디고 2명 6.1%, 퍼플 4명 12.1%, 블루그린 1명 3.0%, 핑크 2명 6.1%, 골드 3명 9.1%, 마젠타 6명 18.2%로 나타났다. 위 내용을 분포도로 정리한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표 3. 인지컬러성향 비교

인지 컬러	구분	빈도	퍼센트
	레드	2	6.1
	오렌지	3	9.1
	옐로우	4	12.1
	그린	3	9.1
	블루	3	9.1
	인디고	2	6.1
	퍼플	4	12.1
	블루그린	1	3
	핑크	2	6.1
	골드	3	9.1
	마젠타	6	18.2
	전체	3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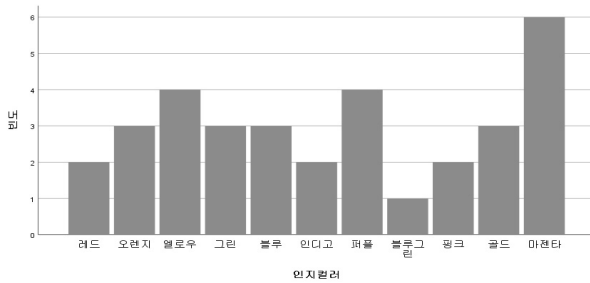


그림 1. 인지컬러성향 비교

2. 행동컬러성향 비교

스포츠 산업발전을 위한 컬러성향분석(CPA) 적용에 따른 행동 컬러성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레드 5명 15.2%, 오렌지 1명 3.0%, 옐로우 5명 15.2%, 그린 3명 9.1%, 블루 2명 6.1%, 퍼플 3명 9.1%, 블루그린 4명 12.1%, 핑크 4명 12.1%, 골드 3명 9.1%, 터콰이즈 2명 6.1%, 마젠타 1명 3.0%로 나타났다. 위 내용을 분포도로 정리한 내용은 <그림 2>과 같다.

표 4. 행동컬러성향 비교

행동 컬러	구분	빈도	퍼센트
	레드	5	15.2
	오렌지	1	3
	옐로우	5	15.2
	그린	3	9.1
	블루	2	6.1
	퍼플	3	9.1
	블루그린	4	12.1
	핑크	4	12.1
	골드	3	9.1
	터콰이즈	2	6.1
	마젠타	1	3
	전체	3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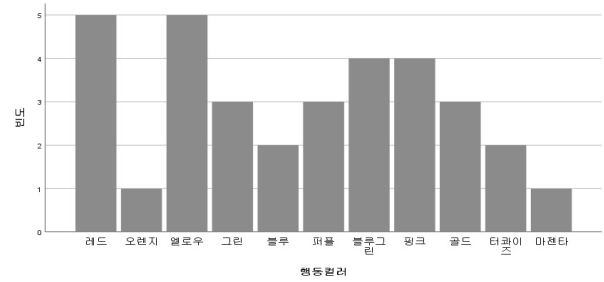


그림 2. 행동컬러성향 비교

3. 추구컬러성향 비교

스포츠 산업발전을 위한 컬러성향분석(CPA) 적용에 따른 추구 컬러성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이 레드 1명 3.0%, 오렌지 3명 9.1%, 옐로우 1명 3.0%, 그린 2명 6.1%, 인디고 4명 12.1%, 퍼플 1명 3.0%, 블루그린 4명 12.1%, 핑크 2명 6.1%, 골드 8명 24.2%, 터콰이즈 5명 15.2%, 마젠타 2명 6.1%로 나타났다. 위 내용을 분포도로 정리한 내용은 <그림 3>과 같다.

표 5. 추구컬러성향 비교

추구 컬러	구분	빈도	퍼센트
	레드	1	3
	오렌지	3	9.1
	옐로우	1	3
	그린	2	6.1
	인디고	4	12.1
	퍼플	1	3
	블루그린	4	12.1
	핑크	2	6.1
	골드	8	24.2
	터콰이즈	5	15.2
	마젠타	2	6.1
	전체	3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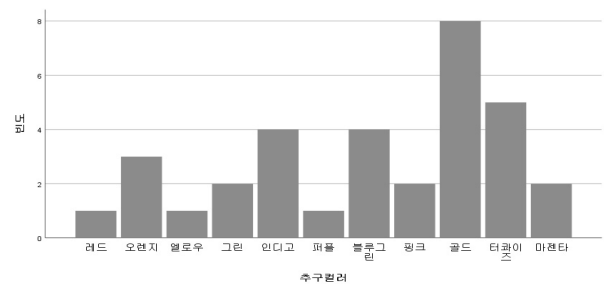


그림 3. 추구컬러성향 비교

4. 인지컬러성향 · 행동컬러성향 · 추구컬러성향 비교

스포츠 산업발전을 위한 컬러성향분석(CPA) 적용에 따른 인지

컬러성향·행동컬러성향·추구컬러성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표 6>과 같이 레드 8명 8.1%, 오렌지 7명 7.1%, 옐로우 10명 10.1%, 그린 8명 8.1%, 블루 5명 5.1%, 인디고 6명 6.1%, 퍼플 8명 8.1%, 블루그린 9명 9.1%, 핑크 8명 8.1%, 골드 14명 14.1%, 터콰이즈 7명 7.1%, 마젠타 9명 9.1%로 나타났다. 위 내용을 분포도로 정리한 내용은 <그림 4>와 같다.

표 6. 인지컬러성향·행동컬러성향·추구컬러성향 비교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레드	8	8.1	8.1	8.1
오렌지	7	7.1	7.1	15.2
옐로우	10	10.1	10.1	25.3
그린	8	8.1	8.1	33.3
블루	5	5.1	5.1	38.4
인디고	6	6.1	6.1	44.4
퍼플	8	8.1	8.1	52.5
블루그린	9	9.1	9.1	61.6
핑크	8	8.1	8.1	69.7
골드	14	14.1	14.1	83.8
터콰이즈	7	7.1	7.1	90.9
마젠타	9	9.1	9.1	100
전체	99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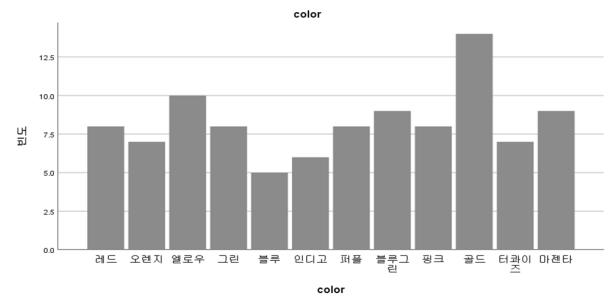


그림 4. 인지컬러성향·행동컬러성향·추구컬러성향 비교

5. 오행에너지 비교

스포츠 산업발전을 위한 컬러성향분석(CPA) 적용에 따른 추구컬러성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표 7>과 같이 금1형 7명 21.2%, 금2형 3명 9.1%, 목1형 3명 9.1%, 목2형 3명 9.1%, 수1형 1명 3.0%, 수2형 3명 9.1%, 토1형 7명 21.2%, 화1형 3명 9.1%, 화2형 3명 9.1%로 나타났다. 위 내용을 분포도로 정리한 내용은 <그림 5>와 같다.

표 7. 오행에너지 비교

구분	빈도	퍼센트
금1형	7	21.2
금2형	3	9.1
목1형	3	9.1
목2형	3	9.1
수1형	1	3
수2형	3	9.1
토1형	7	21.2
토2형	0	0
화1형	3	9.1
화2형	3	9.1
전체	3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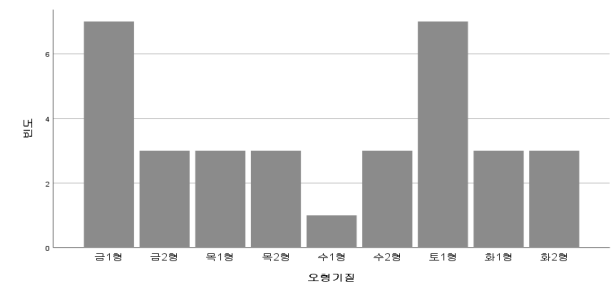


그림 5. 오행에너지 비교

본 연구에서 컬러성향분석(CPA)프로그램을 스포츠 산업의 도구로 활용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A대학교의 태권도학과 학생들 33인을 대상으로 컬러성향분석(CPA)분석을 하였다. 가치관과 사고와 인지를 살펴보는 인지성향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성향은 자존감이 높은 마젠타 성향이었다. 외부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행동 성향은 적극적인 행동력을 상징하는 레드 성향과 긍정적이고 향상심이 뛰어난 옐로우 성향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원하는 삶의 방향을 볼 수 있는 추구 성향에서는 압도적으로 성취와 성공을 향해 도전하는 골드 성향이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다. 특히 전체적으로 가장 우세한 성향은 14.1%의 빈도로 나타난 골드 컬러성향이었는데 골드 성향은 목표를 정하고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략가 기질로서 태권도 선수들에게 필수적인 치고 빠지는 전략과 순발력을 특징으로 하는 성향이다. 그 다음 높은 빈도는 10.1%의 옐로우 컬러성향으로 스피드하고 진취적이며 뛰어난 정보력과 인적 네트워크 능력을 특징으로 한다. 그에 반해 가장 낮게 나온 블루·인디고컬러성향으로 느린 반응과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향인데 5%와 6%가 나타났다. 분석한 결과 평균값인 8.25보다 골드·옐로우컬러성향이 각각 14.1%와 10.1%로 평균값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블루·인디고컬러성향은 각각 5%와 6%로 평균값 이하로 태권도라는 스포츠 종목에 우세한 성향과 그렇지 못한 성향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오행에너지는 강인함을 나타내는 금에너지와 심리적으로 단단함을 나타내는 토에너지가 각각 10%와 7%로 평균이상으로 나타났

고 유연하고 변화무쌍한 수에너지가 4%로 평균이하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스포츠 꿈나무들은 양성할 때 꿈나무들의 성향 분석, 종목 선택 시 도움이 될 수 있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몸의 근육을 키워내듯이 마음 또한 마음의 근육을 키워내기 위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습관화, 일상화를 시켜준다면 컬러성향분석(CPA)의 컬러성향과 오행기질을 알고 스포츠분야에 접목한다면 잠재성향을 알아 변화가 가능해 진다(이영좌, 2017). 잠재성향을 알아 신체활동을 한다면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다(김창환, 송영은, 2021). 또한 강점 보완점을 미리 알아 타고난 성향을 분석한다면 선수양성에 도움이 될거라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컬러성향분석(CPA)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우선, 컬러성향분석(CPA)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여 국내에서 개발되고 국내·외에 알려지기 시작한 컬러성향분석(CPA)의 문헌들을 조사 연구하였다. 또한 컬러성향분석(CPA)프로그램이 스포츠 산업의 도구로 활용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A대학교의 태권도학과 학생들 33인을 대상으로 컬러성향분석(CPA)분석을 진행 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CPA프로그램은 타고난 생년월일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성향을 12가지로 분석할 수 있었다.

둘째, CPA프로그램은 성향 유추가 어려운 본질적, 잠재적 성향 분석을 분석할 수 있었다.

셋째, 컬러성격분석(CPA)프로그램의 인지 성향분석을 파악하여 사건이나 사람에 대한 고유한 가치판단 기준을 분석 할 수 있었다.

넷째, 컬러성격분석(CPA)프로그램의 행동 성향분석을 파악하여 표현방식과 일을 추진하거나 진행하는 방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섯째, 컬러성격분석(CPA)프로그램의 오행에너지 분석으로 내면에 잠재되어있는 에너지의 방향성을 유추할 수 있었다.

여섯째, 컬러성향분석(CPA)은 각 스포츠 종목마다 요구되는 서로 다른 기질과 성향에 대한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일곱 번째, 컬러성향분석(CPA)을 통해 스포츠가 성격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스포츠 각 종목이 지닌 특성이 다른데 양궁이나 사격처럼 집중력이 요구되는 스포츠가 있고, 스피드가 필요한 종목,

순발력으로 순간에 힘을 폭발시키는 종목, 예술적인 표현 능력이 필수인 종목 등 매우 다양하다.

A대학교 태권도 학과 33인의 실험 결과값에서 볼 수 있듯 내성적이고 소심함이 강한 성향이 블루 성향이 비록 가장 적은 수였지만 전혀 반대 성격인 태권도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는 태권도 운동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향을 극복하도록 도왔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지나치게 산만하고 집중력이 부족한 성향을 타고난 경우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는 양궁이나 사격이 흔들리지 않는 강한 정신력과 안정감이 있는 성격으로 발달시켜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컬러성향분석(CPA)은 스포츠가 균형잡힌 성격발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도구로써 유용할 뿐더러 스포츠 산업의 맞춤형 서비스 분야에 많은 활용 가능성을 지닌 프로그램이다.

기존까지는 주로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뷰티, 심리상담 등 다양한 분야와 관계성 분석과 인적성 검사, 심리적 요인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이 연구를 시작으로 앞으로 스포츠 분야와 관계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맞춤형 운동법을 결정할 때 활용될 수 있고 심리적 안정과 멘탈 강화를 통한 성적 향상에 컬러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팀 플레이에서는 관계성 분석으로 상호 관계성을 도와 팀 성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연구가 필요하고 스포츠 인문학적인 접근이 용이할 것이다.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깊이 있는 인간이해를 위한 적극적인 후속 연구에 기여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안지혜, 김종두(2013). 컬러테라피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자연치유학회**, 2(1), 74-82.
- 박후용(2013).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격교육의 성격과 방향. **한국인격교육학회**, 7(2), 45-65.
- 정다혜, 문명희, 윤희상, 최승희(2019). 상담자들의 상담경력 및 1차 기질에 따른 오행심리검사 인식 차이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7), 817-825.
- 김창환, 송영은(2021). 대학생의 신체활동수준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의 관. **한국스포츠학회지**, 39(3), 167-172
- 김진한(2002). 색채의 원리. 서울: 시공.
- Birren, F. (2008). 색채의 영향. 서울: 시공아트
- Birren, F. (1985). 색채심리. 서울: 동국출판사.
- 이영좌(2017). AURA 컬러와 에니어그램 9가지 성격유형과의 유사성 연구: Don Richard Riso와 Russ Hudson의 저서『The Wisdom of the Enneagram』의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 기술에서 AURA컬러 성격유형 사정 발견. **한국자연치유교육학회지**, 1(1), 7-97.
- 이영좌(1997). 본색, 나를 찾아가는 컬러코드. 에너지사이언스(주)
- Sun, H. & Sun, D. (2013). Colour Your Life. (Na, S. S.Trans.). Seoul: Yekyong. (Original work Published 1992).
- Choi, W. J. & Choi, G. S. (2014). The Study for the Preferential Reproduced Color Considering the Cognitive Characteristic. **Journal of Korea Society of Color Studies**, 28(2), 83-94.
- Birren, F. (1973). Color preference as a clue topersonality. **ArtPsychotherapy** 1(1): 13-16.
- Gardner, J. (2006). Vibrational healing through theChakras: Withlight, color, sound, crystals, and aromatherapy. Ten SpeedPress.
- ikkison(2019.05.23.). 1. 빅데이터란?. <https://ikkison.tistory.com/65>
- 김용만(2005.05.02.). 스포츠 산업의 특성. <http://cafe.daum.net/sportstart>